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조세소위 ‘인하’ 의견 우세

**기재위, 배당소득 세제개편 논의
인하 공감대 확산… 요건은 이전
적용시기 1년 앞당겨 2026년 시행
지니계수·형평 논란에 조건조정 검토
예산 소소위 가동… AI·성장펀드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24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한 가운데, 정부안에 담긴 최고세율 35%를 25%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관련해 정부안인 35%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자는 것이 조세소위 위원의 다수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만 다수 발의됐다. 소위원회에 법안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시스

을 발의한 의원이 6분이나 계시다”며 “상당한 간극이 있었지만 2시간 30분 간 회의에서 약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고세율 완화에 반대

하는 의원이 2명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것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분도 계셨다”며 “어떤 의원들은 부자감세를 하면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계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최고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세부적 요건과 세율을 가지고 의견차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조세소위 중간에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최고세율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했다”며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최고세율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정부안보다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초 적용시기를 적용하는 시점도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은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부터 적용이 돼서 문제였다”며 “2027년으로 분리과세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고 기업이 노력상(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액 증가)을 받기 위해 2026년 4월 결산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동의를 해서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2026년 4월 결산배당’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기재부가 이날 밝힌 입장을 공유했는데, 기재부는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일몰 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결위는 예산안 쟁점 사안을 두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를 열고 27일까지 간극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국민 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부상했으며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한 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G20·UAE·튀르키예 잇단 외교… 방산·에너지 협력 진전

**오는 2028년 G20 의장국 수임
UAE ‘스타게이트’ 200억달러 韓 참여
튀르키예에서 국부모 참배·회담 진행
알타이 전차·시놉원전 등 전략 협력**

‘2025년 주요20개국(G20)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 등 다자주의 외교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7박10일 4개국 순방의 마지막 행선지인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원전 협력의 길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6시40분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O.R.탐보 국제공항에서 남아공 측의 환송을 받으며 튀르키예로 떠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직을 수락해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이 대통령은 2028년 G20 의장직 수임으로 임기 내에 UN(국제연합) 안보리, 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제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으로 불리는 G20까지 의장직 수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을 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소화하면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 정상들과 각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앞선 직전 순방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이 대통령은 A 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

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 달러(30조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28년에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오늘날 복합적 국제 현안에 대한 G20 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도착하자마자 국부 묘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은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우리에겐 ‘형제의 나라’로 익숙하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에 앞서 현지 아나톨루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방산·원전 등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튀르키예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 생산, 기술 협력, 인력 교육 및 훈련 교류를 포함한 여러 프로젝트를 포괄한다”며 “방산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알타이 주력전차 생산 프로그램이다. 한국과 튀르키예 모두 선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튀르키예 시놉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과 안전한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의 원자력 발전 역량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성력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李 대통령 지지율 55.9%… 1주 만에 50%대 중반 회복

**중동·아프리카 순방 성과에 긍정평가
TK·30대 지지 반등… 20대는 부정 우세
코스피 급락·환율 여파로 상승폭 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1.4%포인트(P) 오르며 55.9%를 기록해 1주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양당 간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양상이 유지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에게 묻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응답률 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긍정 응답은 55.9%, 부정 응답은 40.5%로 나타났다. 부정 응답은 전주 같은 조사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권역별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서 지난 주 같은 조사보다 긍정 응답이 7.5%포인트가 올라 44.4%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긍정 응답이 전주보다 8.9%포인트가 올라 55.4%를, 20대에서도 3.7%포인트가

올라 40.3%를 기록했다. 다만, 20대에선 여전히 부정 응답이 56.5%로 높았다.

리얼미터는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50조 원 규모 MOU(양해각서) 체결 등 경제 외교 성과가 부각되며 주 중반까지 상승세를 이끌었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코스피 3900선 붕괴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

게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률 3.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은 47.5%·국민의힘 34.8%,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1%, 기타정당 1.8%, 무당층 8.0%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보다 0.8%포인트 올라 4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올라 3주 만에 12.5%포인트에서 12.7%포인트로 소폭 늘어났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순방 외교성과와 경제회복 기대감이 당에도 이익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30대 등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상당 폭 결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예산 포퓰리즘 비판 등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공세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수층에서 결집 효과를 내며 반동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도층과 대구·경북 지역에서의 이탈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며, 전통 지지층 방어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